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8월 4주 ~ 9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Fitch, 폴란드 국가신용등급 'A-' 유지 전망(8.17)
 - 다만 폴란드는 EU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제한적인 추가 재정여력을 안고 있어 재정건전화의 규모·속도·시점이 향후 신용등급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폴란드, 7월 건설·조립생산 2.4%(8.19)
 - 폴란드 7월 건설·조립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4%, 전월 대비 7.6%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전년동월 대비 +4.2%)를 크게 하회했으며, 전문공사업(-6.4%)을 비롯한 주요 전 부문이 감소
- 7월 말 건설 중 주택 85.9만호로 전년 대비 0.6% 증가(8.19)
 - 2026년 7월 말 기준 건설 중인 주택은 약 859,4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물량이 소폭 확대
 - 다만 증가폭이 1%를 밑돌아 주택 건설 활동의 성장세는 제한적인 수준, 향후 착공·분양 및 주택 수요 회복 여부가 건설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우크라이나 국채, 2023년 이후 150% 수익률 기록(8.20)
 - 달러화 표시 우크라이나 국채 9종을 추적하는 Bloomberg 지수는 2023년 이후 약 150%, 2026년 들어서만 12% 상승했으며, 2029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약 13%, 가격은 액면가의 85센트 수준으로 2025년 6월 58센트 대비 크게 상승
-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 등록 709개로 증가, 중국계 투자자 첫 1위(8.25)

- 2026년 1~7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실소유주를 둔 신규 기업 709개가 등록되어 전년 동기(672개) 대비 6%, 2024년 동기(574개) 대비 24% 증가했으며, 총 65개국 국적 투자자가 참여해 전쟁 지속 상황에서도 외국인 기업 설립이 확대되는 추세
- 중국계 투자자가 114개 기업을 신규 설립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년(41개) 대비 약 3배 증가하였고, 이어 터키(98개), 미국(62개), 독일(44개), 아제르바이잔(35개) 순으로 나타나 중국·터키 등 인접 및 주요 교역국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두드러짐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폴 정부, 항만·원전 등 핵심 인프라 투자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국방·안보·경제 관련 사업 추진 가속화(8.18)
 - 폴 정부는 국방·안보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의 준비·시행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
 - 주요 대상은 그디니아(Gdynia) 외항 개발·시비노우이시치에(Świnoujście) 외항 확장·Cape Pomerania 컨테이너항 개발 및 항만 연계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가 및 유럽 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
 - 특히 포메라니아 지역 원전 건설과 연계된 Choczewo·Krokowa 지역의 해양·수리시설 및 해상 인프라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지정해,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해상·육상 기반시설 확보와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이행 속도를 높일 방침
- 폴란드, Mirbud 환경규정 위반 논란으로 46억 즈워티 규모 Białystok-Ełk Rail Baltica 사업 20개월째 지연(8.18)
 - PKP PLK가 추진하는 Białystok-Ełk 구간 Rail Baltica 현대화 사업(약 45.6억 즈워티)은 Torpol·Mirbud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irbud의 S1 고속도로 건설 관련 환경규정 위반 행정 벌금 미신고를 이유로 입찰에서 배제되면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약 20개월째 지연

- Mirbud가 관련 행정벌금의 적용 대상 및 입찰 배제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운데, 9월 4일 바르샤바 지방법원 판결이 향후 입찰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며, EU CEF 자금 8억 유로 이상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2029년까지 공사·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EU 지원금 반환 및 사업 차질 가능성도 제기
- 폴 국영 Gaz-System 가스관 조달 ‘가격 우선 vs. 자국산 우선’ 논란 지속, 철강업계는 생존 위기 호소(8.18)
 - 국영 가스망 운영사 Gaz-System이 가스관 입찰에서 가격을 사실상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Stalprofil·Izostal 등 폴란드 철강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local content(자국산·국산 부품) 정책’이 실제 공공조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총리에게 재차 개선을 촉구
- 미국 FedEx 주도 컨소시엄, 78억 유로 규모 폴란드 InPost 인수에 EU 승인, 9월 최종 성사 전망(8.1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FedEx 주도 컨소시엄의 폴란드 택배 업체 InPost 인수(78억 유로·약 337억 즈워티)를 승인
 - InPost는 '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39억 즈워티를 기록하고 영국 매출이 121% 급증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 이번 인수를 통해 FedEx가 InPost의 무인택배함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라스트마일 배송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
- Deutsche Telekom, 폴란드 Fiberhost·Inea 10억 유로에 인수, T-Mobile Polska 유선통신 사업 확대(8.17)
 - Deutsche Telekom은 Macquarie Asset Management로부터 Fiberhost와 Inea를 10억 유로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폴란드 경쟁당국 승인을 거쳐 '26년 말 거래 완료 예정
 - 인수 후 T-Mobile Polska는 140만 가구 이상을 커버하는 Fiberhost 광섬유망과 Inea의 30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해 모바일 중심에서 유·무선 결합 통신사업자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
- 폴란드, Energa-Operator에 3.47억 즈워티 지원해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8.19)

- Energa-Operator는 FEnIKS 2021-2027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개발 사업 2건에 총 3.47억 즈워티의 EU 기금을 확보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약 4.5억 즈워티
- 2개 사업을 통해 신규 중·고압선 75km 이상 건설, 기존 전력망 53km 이상 현대화, 신규 변전소(GPZ) 5곳 건설 및 12곳 개보수를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접속능력을 264MWe 이상 확대하고 폴 4개 주 18.5만여 고객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개선할 계획

○ 폴란드, 그루지옹츠 지역난방에 1.04억 즈워티 규모 태양열·열저장 설비 구축 추진(8.19)

- 그루지옹츠 지역난방공사 OPEC Grudziadz는 Unibep을 사업자로 선정해 Łakowa 열병합발전소에 태양열 집열기 및 열저장 설비를 구축하며, 계약 규모는 총 103.7백만 즈워티, 2027년 4분기 준공 예정

○ Orlen, Equinor와 3년간 노르웨이산 원유 최대 9백만톤 공급계약 체결로 석유 공급망 다변화 강화(8.19)

○ 폴란드, 펜돌리노 250km/h 시험운행 성공으로 주요 도시 간 철도 시간 단축 및 고속철도 확대 본격화(8.20)

- 폴란드는 중앙간선철도(CMK)에서 펜돌리노 열차의 253km/h 시험 운행에 성공했으며, 2027년 12월부터 정규 운행속도를 250km/h로 상향해 바르샤바-크라쿠프 이동시간을 약 1시간 52분으로 단축하고 바르샤바-브로츠와프도 약 3시간으로 단축할 계획

○ 폴란드 풍력발전 설비용량, 1년 새 394MW 증가한 11,385MW 기록, 태양광도 27,644MW로 확대(8.21)

- 폴 전력망 운영사 PSE에 따르면, 2026.7.1 기준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1,385MW로 전년(10,991MW) 대비 394MW 증가했으며, 태양광 발전도 2026.6.30 기준 27,644MW로 전년(23,696MW) 대비 3,948MW 확대

○ 폴란드 2027년 보충 용량시장 경매, 잠재 공급량이 수요의 약 19% 초과해 입찰가격 하락 압력 확대 전망(8.21)

- 폴 송전망운영사 PSE는 2027년 보충 용량시장 경매의 잠재 공급량을 약 8GW로 제시했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수요량 6,725.8MW를 약 1.27GW(19%) 상회하는 수준
- 경매는 9.3일 08:00부터 최대 1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최고가격은 558PLN/kW·년, 하한가격은 511.52PLN/kW·년으로 설정
- 경매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격 범위가 하향 조정되며, 6단계는 279.07~325.55PLN/kW·년, 최종 12라운드에는 0.12~46.61PLN/kW·년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
- 잠재 공급량이 기준 수요보다 많은 만큼 발전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최종 낙찰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낙찰가격은 공급량 자체가 아니라 각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업자들의 입찰가와 수요곡선에 의해 결정될 전망
- PERN, 비스와강 하저 원유송유관 1·2호선 중앙구간 HDD 공사 계약 체결, 2028년까지 1.4억 즈워티 규모 인프라 현대화 추진(8.20)
 - 비스와강 양안에 DN500·DN800 신규 송유관 구간을 건설하고 Grabówka·Tokary 밸브 스테이션 및 장거리 송유관망과 연계된 부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약 25m 깊이에서 기존 노후 하저 구간을 우회해 시공함으로써 원유 수송의 안전성 높이고 환경 영향 및 사고 위험을 저감하는 것이 목적
- 폴 정부, 매출 50백만 유로 초과 대형 에너지·연료기업 법인세율 19%→30% 인상 추진,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8.21)
 - 천연가스·원유 채굴, 가스·원유 및 액체연료 거래, 전력 생산·유통·송전 등 에너지·연료 분야에서 매출 5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027년 30%로 인상하고, 이후 2028년 26%, 2029년 23%를 적용한 뒤 2030년부터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 폴 정부, 크라쿠프 메트로 건설에 EU 재원 등 활용한 재정지원 약속, 지자체의 인허가·사전조사 등 사업 준비 촉구(8.20)
 - 투스크 총리는 크라쿠프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환경 인허가·지질조사·건설부지 준비 등 지자체 차원의 선행 절차가 완료될 경우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재원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재원이 아닌 EU 기금, 국영은행 BGK 대출, 민관협력(PPP) 등을 결합해 조달할 계획이며, 인프라부는 2028~2034년 EU 재정 프레임워크에 폴란드 주요 도시의 메트로 건설 지원을 위해 약 100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을 반영할 방침
- 총 2개 노선, 약 29km 규모의 메트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30억~150억 즈워티로 추산, 지난 7월 메트로 사업 관련 예산으로 188백만 즈워티를 배정하였으며, 향후 10년 내 첫 노선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Grupa Azoty, 'Polimery Police' 사업 관련 추가 검찰 신고 추진, 투자비 증가·사업장 조기 가동·자금조달 과정 등 전방위적 법적 책임 규명 착수(8.20)

- Grupa Azoty는 2025년 11월 최초 신고 이후 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한 결과, Polimery Police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가동·비용 집행·자금조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확인됐다고 검찰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발표
- 2021~2023년에는 공장 완전 가동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급 인력 확대와 마케팅·사전 마케팅 비용 등이 과도하게 집행돼 수백만 즈워티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
-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Grupa Azoty 계열사가 Polyolefins에 2.2억 즈워티 이상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 것과 별도로, 계열사로부터 총 18억 즈워티 규모의 자금조달이 이뤄진 과정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
- Polimery Police는 프로필렌 생산설비,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장 및 항만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당초 약 45억 즈워티였던 사업비가 약 70억 즈워티로 증가했으며, 2023~2024년 단계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지만 당초 목표 생산능력 및 운영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Grupa Azoty는 프로젝트로 인해 그룹 전체 부채가 182억 즈워티까지

증가했으며, 구조조정 이후에도 약 132억 즈위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연간 이자비용만 약 8억 즈위티에 달해 다른 투자사업 추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신고는 단순한 사업비 초과 및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장 가동 시점·비용 집행·계열사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금융 구조 전반의 적정성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음

○ 폴 주택건설 시장, 신규 착공 둔화 및 사업 중단 증가에도 인허가·설계 단계는 활발해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 유지(8.20)

- 주택건설 시장에서 최근 1년간 936개 프로젝트가 중단된 반면, 기초공사 착수 또는 본공사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1,219개로 집계돼 건설 단계는 둔화세이며, 신규 착공 100건당 약 77건이 중단되는 수준
- 주택건설 실질 생산액도 2026년 7월까지 12개월간 약 4% 감소, 특히 우치(Łódź)·비엘코폴스카(Wielkopolska)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착공보다 중단 프로젝트가 더 많은 상황
- 지역별로는 우치 지역의 중단/신규 착공 비율이 120%, 비엘코폴스카가 약 110%이며, 바르샤바에서도 중단 프로젝트가 114건으로 착공 중인 72건을 크게 상회, 이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착공 시점에 대한 보수적 판단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다만 기획·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2026년 2분기 약 76,000가구에 대해 건축허가가 발급되거나 건축설계가 포함된 신고가 접수돼 최근 수년간 높은 수준을 기록
- 산업·물류 분야에서도 사업 지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은 약 1,400개 프로젝트 중 33.6%가 중단, 20.6%가 건설 중
- 물류창고는 최근 1년간 219개 프로젝트가 중단된 반면 신규 착공은 193개에 그쳤으나, 다만 물류 수요는 견조해 신규 임대가 전체 물류 공간 수요의 42%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과잉개발에서 안정적 공급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
- 오피스 건설은 더욱 뚜렷한 위축세로 최근 1년간 84개 프로젝트가 중단된 반면 신규 착공은 43개에 불과, 반면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건설은 신규

착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민간과 상반된 흐름을 보임

- 상업·서비스시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외곽의 소규모 리테일파크 확대가 성장을 견인, 호텔은 중단 139건, 신규 착공 133건으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
- 폴 건설시장은 주택·오피스 등 민간 개발 부문의 착공 지연과 프로젝트 중단 증가가 나타나는 반면, 공공 인프라 및 일부 상업·물류 분야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흐름
- 특히 주택 분야에서는 인허가·설계 단계의 높은 활동성이 유지되고 있어, 향후 금융여건·수요·사업성에 따라 상당수 프로젝트가 실제 착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가 시장 회복의 핵심 변수로 평가됨

○ 폴란드 2027년 보충 용량시장 경매, 잠재 공급량이 수요의 약 19% 초과해 입찰가격 하락 압력 확대 전망(8.21)

- 송전망 운영기업 PSE는 9.3(목) 실시 예정인 2027년 보충 용량시장 경매의 잠재 공급량을 약 8GW로 제시했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수요량 6,725.8MW를 약 1.27GW(19%) 상회하는 수준
- 경매는 9.3일 최대 12개 라운드로 진행되며, 1라운드 최고가격은 558PLN/kW·년, 하한가격은 511.52PLN/kW·년으로 설정
-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가격 범위가 하향 조정되며, 6라운드는 279.07~325.55PLN/kW·년, 최종 12라운드는 0.12~46.61PLN/kW·년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
- 잠재 공급량이 기준 수요보다 많은 만큼 발전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최종 낙찰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낙찰가격은 공급량 자체가 아니라 각 라운드에서 제출되는 사업자들의 입찰가와 수요곡선에 의해 결정될 전망

○ 폴 동부 국경 방어 강화 위해 美·英·佛 군 병력 합류, NATO 공동 방위 체계로 확대(8.21)

- 폴란드가 러시아·벨라루스 접경지역 방어를 위한 'East Shield' 사업에 미국·영국·프랑스 군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프랑스 공병 약 80명은 폴란드군과 함께 방호시설 구축에 참여할 계획

- Port Polska, Grudziądz에 40ha 규모 복합운송터미널 건설 추진, CMK-Północ 철도망과 연계(8.21)
 - Port Polska와 그루지웁츠시가 철도·도로를 연계한 약 40ha 규모의 복합 운송(intermodal)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 터미널은 여객·화물 철도망을 통합하는 '통합철도망(ZSK)' 및 CMK-Północ 고속 철도 노선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
- PKP Intercity, 최대 350km/h 고속철도 차량 20편성 구매 추진(8.23)
 - PKP Intercity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조달사업에 착수해 Pesa·Hitachi Rail 컨소시엄, Alstom, Siemens Mobility, Talgo 등 4개 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26년 9월 경쟁적 대화 절차를 시작해 '27년 6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 신규 차량은 폴란드뿐 아니라 독일·체코·오스트리아 운행 승인을 취득 하도록 설계해 중부유럽 국제철도망 확대를 목표로 하며, 첫 2편성은 계약 체결 후 60개월 이내, 초기 20편성 전체는 84개월 이내 인도 예정
- 폴란드 기업·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장기계약(cPPA) 확대, 에너지 비용 안정화 수단으로 부상(8.24)
 - 폴란드가 유럽 내 주요 cPPA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장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탈탄소화뿐 아니라 전력가격 변동 위험을 낮추고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
 - 현재 폴란드에서 cPPA가 적용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약 2.9GW로, 태양광 1.8GW·풍력 0.7GW·풍력+태양광 0.4GW 수준, 최근에는 발전량 변동성 및 출력제어 위험을 낮추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계약이 확대되는 추세
- 폴, Unibep 컨소시엄과 10억 즈워티 규모 Gdańsk Osowa - Gdynia 철도 현대화 계약 체결(8.24)
 - PKP PLK가 추진하는 Gdańsk Osowa - Gdynia Główna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철도 201호선 약 12km 및 202호선 약 1.5km)에 대해 Unibep·Track Tec Construction 컨소시엄과 8.74억 즈워티 규모의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

했으며, 공사기간은 69개월(2032년 완료 예정)

- 폴란드, Unibep 3.93억 즈워티 규모 Białystok 스포츠·공연장 건설 사업 최우수 제안 선정(8.25)
- PORR, 바르샤바 군사기술대학 750명 수용 군인기숙사·2,000명 규모 식당 건설 계약 체결(8.25)
- Tauron Ciepło, 마워폴스키에주 크세쇼비체 신도시 주거지역 대상 지역난방 투자 추진(8.26)
 - Tauron Ciepło와 크세쇼비체(Krzeszowice) 지방정부는 반두르스키에고(Bandurskiego) 거리 인근 서부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응한 현대적·에너지 효율적 난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
- Galia Green Power, 3.76억 즈워티 규모 금융조달을 통해 폴란드 내 바이오메탄 사업 확대 추진(8.26)
 - 폴란드 바이오가스 투자기업 Galia Green Power는 PKO Bank Polski·BGK·mBank로 구성된 은행 컨소시엄과 3.76억 즈워티(약 1,400억 원) 규모의 금융계약을 체결, 바이오가스 플랜트 인수 및 기존 설비 확장, 신규 바이오메탄 사업 개발 등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
 - Galia Green Power는 현재 미하우프(Michałów), 드조누프(Drzonów), 이워비에츠 비엘키(Iłowiec Wielki) 등 3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 사업 전 주기(부지 확보·사업개발·금융조달·건설·운영·현대화)에 걸쳐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사업을 추진 중
- Erbud, 모듈러 사업 자회사 MOD21 투자 중단 및 단계적 철수 결정(8.26)
 - 폴 건설사 Erbud의 자회사 MOD21은 최근 3년간 누적 약 1.4억 즈워티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Erbud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보증수리 등을 모두 완료한 뒤 모듈러 사업을 종료할 방침
- 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0.9GW로 전체 발전설비의 52% 차지,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8.25)
 - 2026년 6월 말 기준 폴란드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78.6GW, 이 중 재생에너지

설비는 40.9GW로 5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전체 설비용량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년 동월 대비 13.9%(약 5GW) 증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태양광(PV)으로, 2026년 6월 기준 설비용량이 27.4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67%를 차지, 전년 23.0GW 대비 19.1%(4.39GW) 증가해 풍력 등 다른 전원보다 빠른 성장세
- 풍력은 11.0GW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27%를 차지하며 2위 유지, 전년 10.5GW 대비 증가율은 4.4%로 태양광보다 크게 낮아, 폴란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태양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폴란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MW) (‘25. 6.)	설비 용량(MW) (‘26. 6.)	증감률 (%)
수력 발전소	981.5	996.4	101.5
풍력 발전단지	10,532.1	10,997.7	104.4
바이오가스 발전소	323.1	333.5	103.2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4.3	1,012.6	100.8
태양광 발전소	23,022.7	27,410.7	119.1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설비	8.1	28.0	347.9
기타 재생에너지원	68.8	164.3	238.9
합계	35,940.6	40,943.3	113.9

- 폴 외교부, 우크라이나인의 경제 기여 강조, 2024년 취업률 78%·GDP 성장 기여도 2.7%p 제시(8.26)
 -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경제활동이 폴란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4년 우크라이나의 취업률이 78%, GDP 성장 기여도가 2.7%p에 달했다고 발표
 - 현재 폴란드에서 약 96.6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공식 고용되어 있으며, 최근 수년간 우크라이나인이 설립한 기업이 10만 개 이상으로 전체 신규 등록 기업의 약 10%를 차지
- 폴, 2040~2050년 태양광 폐패널 급증 대비 재활용 인프라 확충 필요(8.27)
- Orlen·Veolia, 산업·에너지·도시 분야 협력 협약 체결, 에너지 효율·순환경제·환경 인프라 공동사업 발굴(8.27)
 - 양사는 Orlen의 기술·원료·투자 역량과 Veolia의 산업·도시 인프라 사업

경험을 결합해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활성화, 수자원 관리 및 환경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기로 함

- 헝가리 4iG, 폴란드 중형 풍력발전단지 인수 실사 착수 및 중동부유럽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8.27)
 - 4iG 그룹은 폴란드 내 중형급 터키 풍력발전단지 인수를 위한 예비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사를 진행 중
 - 자회사 4iG Befektetési를 통해 총 158MW 규모 풍력발전단지 포트폴리오의 49% 지분을 보유한 iG Tech Energy 펀드 지분 인수를 위한 구속력 있는 제안을 제출했으며, 거래 성사 시 연내 마무리할 계획
- PKP Intercity, 2030년까지 철도차량·인프라에 254억 즈워티 투자, 정비·기술기지 확충으로 차량 운영능력 강화(8.27)
 - PKP Intercity는 2025~2030년 총 254억 즈워티를 철도차량 및 인프라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모든 A·B등급 차량 주차시설을 현대식 차량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해 차량 증편 및 사업 확대에 대응할 계획
- Eurowind Energy·Windbud, 폴 풍력발전 포트폴리오 56MW에 85백만 유로 규모 리파이낸싱 확보(8.31)
- Orlen·Sołowow 합작 원전기업 OSGE, 유동성 위기 가능성 부상(8.31)
 - Orlen과 Michał Sołowow가 공동 소유한 Orlen Synthos Green Energy(OSGE)가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사용료를 8월 말까지 Sołowow 측 회사에 지급해야 하나, 현재 자금이 부족해 9월 1일부터 유동성 상실 및 청산 가능성이 제기됨
 - OSGE 측은 Orlen에 자본확충(재자본화) 또는 주주대여 방식의 자금지원을 제안했으나, Orlen이 기한 내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OSGE의 유동성 위기 및 청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Sołowow 측이 기술사용료 지급을 유예
 - Orlen과 Sołowow 측은 수개월째 OSGE의 지분구조 및 자금조달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 특히 첫 SMR 건설 예정지인 Włocławek 사업의 추진 주체에 Orlen이 약 80%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폴란드 정부도 양측 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폴란드개발기금(PFR)의 OSGE 지분 33%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에너지부는 한 주주가 50%를 보유해 의사결정이 교착되는 구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Ascania Energy, 중국 Risen Energy와 협력해 태양광 100MW·에너지 저장장치 200MWh 구축 추진(8.18)**
 - 우크라이나 Ascania Energy와 중국 에너지 장비업체 Risen Energy는 태양광 발전 최대 100MW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200MWh 규모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8월 14일 중국 Risen Energy 생산시설에서 관련 협약을 체결
- **Ukrnafta, EBRD 지원으로 63MW 규모 분산형 가스발전 구축 추진, 일부 설비 연내 설치 계획(8.17)**
 -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가스기업 Ukrnafta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45백만 유로 공여금을 활용해 총 17개 시설, 약 63MW 규모의 분산형 가스발전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장비 공급업체 선정도 완료해 일부 설비의 연내 납품·설치를 추진
 - 생산된 전력의 70~80%는 Ukrnafta 자체 시설의 안정적·무중단 운영에 활용하고, 잔여 전력은 전력망에 공급할 예정으로, 전력 불안정에 대응하는 자체 발전능력 확보가 주요 목적
- **UZ Cargo Poland, 폴-우 국경에서 64량·818m 규모 화물열차 운행 성공, 국경 철도 물류 처리능력 확대 기반 마련(8.17)**
 - 우 국영철도 Ukrzaliznytsia 계열의 UZ Cargo Poland는 8.15(토) 폴도로후스크(Dorohusk)-우 야호딘(Yahodyn) 국경철도 구간에서 64량, 총연장 818m, 총중량 5,100t 규모의 화물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실시
 - 이번 열차는 탱크화차로 구성, 1,435mm 표준궤도를 이용해 운행하였으며, UZ Cargo Poland가 LTG Cargo Polska, 폴란드 철도 인프라 관리기관 PKP PLK 및 Ukrzaliznytsia와 공동으로 운송을 수행
 - 장대(長大)열차 운행이 정착될 경우 동일한 화물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폴-우 간 철도 화물수송 효율 및 국경 통과능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경 통관·환적 절차, 선로 및 역의 유효장, 기관차 확보, 열차 운행 배차 등 관련 인프라와 운영체계의 추가 정비가 필요
- 영국 방산투자 플랫폼 Grenadyr, 우크라이나 방산기술 기업 5곳 등에 투자해 드론·로봇·통신 분야 포트폴리오 확대(8.19)
 - 영국 벤처투자 플랫폼 Grenadyr가 우크라이나 방산기술 기업 5곳과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영국 프로젝트에 총 35만~130만 달러 규모 투자
 - 제트엔진 요격드론·중거리 타격드론·지상무인로봇·전자전 대응 통신 시스템·스마트 지뢰체계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 엔진 개발사 Dynamic Propulsion에도 투자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활용한 방산기술 개발·생산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행보를 강화
- 불가리아, 우크라이나행 천연가스 수송량 확대를 위한 협의 제안,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추진(8.19)
- 우크라이나 빈니차주, 연간 72백만m³ 규모 바이오가스 복합단지 2단계 확장 추진(8.19)
-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연간 옥수수 19.8만톤 처리 규모 전분 생산 단지 개발 추진(8.19)
- Spes Ukraine, 호멜니츠키주 대규모 흑연광산 개발 추진(8.19)
 - 터키 기업 Onur Group·Özdoğu Sarp가 지원하는 Spes Ukraine가 우크라이나 주요 흑연 매장지 중 하나인 Burtynske 광산의 Horodniavka 구역에 약 105ha 규모 노천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며, 연간 흑연 원광 생산능력은 최대 1백만톤으로 추진
- 벨기에 국영 개발금융기관 BIO, 우 재건펀드에 6백만 달러 투자(8.20)
- 우크라이나, 2026년 상반기 전쟁위험 보험금 1.77억 흐리우나 지급하며 보험시장 확대(8.20)
- 우크라이나 기업, 최근 18개월간 4GW 이상 분산형 발전설비

구축, 산업용 에너지저장·열병합·태양광 중심으로 전력망 자립 및 회복력 강화(8.21)

- 우 기업들은 2024년 1.26GW, 2025년 2GW에 이어 2026년 상반기 약 2GW의 분산형 발전설비를 추가 구축, 정부는 자체 발전·전력 수입으로 전력수요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산업·상업용 소비자에 공급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분산형 발전 및 전력수입 확대를 지원

○ 우, '25년 유럽 BESS 시장 성장세 4위 기록, 배터리 저장설비 신규 설치량 5배 증가하며 에너지 안보·전력망 회복력 강화(8.21)

-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25년 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BESS)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3GWh에 육박, 독일·영국·이탈리아에 이어 유럽 4위를 기록했으며, 전쟁에 따른 정전 대응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수요가 시장 확대를 견인

○ DTEK,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확대하며 전후 에너지 인프라 재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8.21)

- DTEK는 GE Vernova·Octopus Energy·Halliburton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잇따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저탄소·유연형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
- GE Vernova와 최대 650MW 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약 9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서부 지역 부르슈틴 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 예정
- Octopus Energy와 태양광·배터리 저장장치 사업(Project RISE)을 공동 추진, 우크라이나 기업 및 공공기관 건물에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ESS를 설치하고 약 1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대 1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
- Halliburton과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도 추진하며, 유정 완결·생산성 향상·시추 설계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
- 이와 함께 650MW 규모 폴타바 풍력발전단지 건설도 추진 중으로 약 12억 유로를 투자해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최대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가능

- DTEK는 전후 에너지 재건을 재생에너지·가스발전·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추진

○ 폴 Grupa Mosty, 오데사에 900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8.24)

- 폴 인프라·재생에너지 기업 Grupa Mosty가 오데사 주에 총 900MW 규모의 'Pivdennodnistrovska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완공 시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로 부상 전망
- 프로젝트는 Biliaivka·Vyhoda·Lymanske 지역 외곽에 추진되며, 환경영향평가·인허가 및 계통연계 절차 등을 거쳐야 해 900MW는 현재 개발 목표 단계

○ 우 정부, 산업단지 2곳에 총 56백만 흐리우냐 인프라 지원 승인(8.24)

- 우 경제부가 크멜니츠키주 'ART PAK INDUSTRIAL'과 리브네주 'KRONOSPAN RIVNE' 등 2개 산업단지에 총 56백만 흐리우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승인, 생산시설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

○ 노르웨이, '27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850억 크로네 유지 방침, 군사 지원에 700억 크로네 배정(8.24)

- 전체 지원액 중 약 700억 크로네를 군사 지원에 투입, 약 150억 크로네는 민간·인도적 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며, 군사 지원에는 우크라이나 자국 방산업체를 통한 무기·장비 구매도 포함

○ 우, 9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쿼터 850MW 경매 실시(8.25)

- 우 국영기업 Guaranteed Buyer가 2026년 9월 Prozorro.Sale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총 850M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쿼터 경매 3건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쟁 상황에서도 풍력·태양광 중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 유치를 지속
- 700MW는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배정, 9월 30일 경매를 실시하고 입찰 상한가격은 8유로센트/kWh로 설정하였으며, 태양광 분야는 9월 25일 두 차례 경매를 통해 ▲ESS 연계 태양광 100MW(상한 12유로센트/kWh) ▲ESS 의무가 없는 태양광 50MW(상한 8유로센트/kWh)를 각각 배정

- ESS 연계 태양광의 경우 저장장치 용량을 발전설비 총 설치용량의 최소 80%로 설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하루 중 00:00~11:59 및 14:00~23:59 두 개의 지원시간대에 전력 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우 OTP Bank, 기업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프로그램 출시(8.26)

- OTP Bank과 Freedom Energy Ukraine은 우크라이나 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 기업의 재생 에너지 투자 및 에너지 자립 확대를 지원할 계획
- 대출 금리는 최초 4개월간 연 0.01%를 적용한 후 잔여 기간에는 연 7% 보상금리가 적용되며, 7% 금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Affordable Loans 5-7-9%'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대출기간은 최대 84개월(7년)이며 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태양광 설비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 Kernel, 덴마크 EIFO로부터 1억 유로 대출 확보, 94.5MW 풍력 발전단지 건설 추진(8.26)

- 우 농업기업 Kernel은 덴마크 수출·투자기금(EIFO)과 1억 유로(약 1.17억 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 전쟁 이후 첫 자체 풍력발전 사업으로 중부 우크라이나에 94.5MW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
- 이번 금융은 EIFO의 'Ukraine Facility'를 통해 제공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4년, 최대 2년의 건설기간과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고 이후 약 10년에 걸쳐 상환 예정
- 풍력단지는 덴마크 풍력터빈 제조업체 Vestas가 공급·설치하는 21기의 풍력터빈으로 구성되며, 출력 변동 및 피크시간대 전력 수급 조정을 위해 30MW 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도 함께 구축할 계획
- 2027년 가을까지 전력망 연결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키이우 이르핀 14백만 달러 규모 Riviera Club 아쿠아파크 완공 위한 추가 투자자 모집(8.27)

- McDonald's,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에 첫 매장 개점, 지역 내 첫 진출을 통해 신규 거점 확보 및 60개 일자리 창출(8.26)
 - McDonald's가 체르카시주 우만(Uman)시에 처음으로 진출, 우크라이나 내 130번째 매장을 개점, 신규 매장은 우만시 외곽의 M-05 키이우 - 오데사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위치해 키이우·오데사 간 이동 차량 등 광역 유동인구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
- Oschadbank, 르비우 핵심 인프라 현대화에 5.8억 흐리우냐 규모 대출 지원(8.31)
 - 우크라이나 국영 Oschadbank과 르비우 시의회는 5년 만기 582백만 흐리우냐(약 14.1백만 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도시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9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
 - 대출금은 주택·공공시설 현대화, 도로 정비,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도시 핵심 인프라의 복구·현대화를 지원
 - 이번 신규 대출을 포함해 Oschadbank은 최근 3년간 르비우시에 총 약 21억 흐리우냐를 지원, 2026년 8월 기준 지방정부 대출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방 인프라 재건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역할 확대
- Oschadbank·Ukreximbank, 키이우 Gulliver 복합단지 쇼핑몰 207백만 달러(약 2,832억 원)에 매각 추진(8.31)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주요동향) '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안)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KIND, EUR 7.5백만) 입금완료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남동발전,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453백만
- (사업기간) 2026.2.~2054.12. (건설 38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9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11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9월 初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9월 中 법인인수(설립)
'26년 9월 末 SPA 체결(KIND PL↔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준공식* 개최 예정(9.9)

* KIND, LX판토스, 해진공 참석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애플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9.6.~9.12.)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9.10. (210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7. 19.~7. 25.)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완 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완 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추 진 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완 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추 진 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